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바누아투 역시 이상기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비가 내리고 있고 기온도 내려가 쌀랑하기까지 합니다. 선풍기를 잊고 살만큼 바누아투에 온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서늘함입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열기만큼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부족한데다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겹치면서 사역이 움츠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달 넘게 걱정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이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다시 사역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라빠' 지역에 교회, 학교, 선교사 숙소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나술레술레' 지역에서는 부시에서 내려온 어린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셀레' 지역에는 유치원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보투마스', '소로아', '바투마사나' 지역에서는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누아투 외부에서는 코로나로 지금까지 끊어졌던 단기 선교팀들이 이곳에 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일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사역들을 일으키시며 이곳을 들썩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검사였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맹장염인 것 같으며 10일 치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후 항생제를 다 복용 하였는데도 복통이 2~3차례 더 반복되었습니다. 심각한 병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교단체와 논의한 후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신장결석으로 인한 통증이었습니다. 며칠간은 약물로 결석을 제거하려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수술로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에 두고 온 가족과 곧 오게 될 단기 기팀을 위해서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기 팀이 들어오기 전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도움 주신 여러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제가 한국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도 바누아투 산토에서는 여전히 바쁜 사역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고, 바로 이어 예비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선교 훈련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빈자리는 아내인 최선교사가 맡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홈스쿨링에 공동체 식사 준비와 발일도 하면서 매일의 강의까지, 아내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감당해 냈습니다. 나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슬며시 건네었습니다. “최선교사님이 가르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앞으로도 저희를 계속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빈자리를 멋지게 채운 아내의 활약에 마음이 너무 뿌듯했고 고마웠습니다.



※ 길목과 마을길에 세워진



※ 바나나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최선교사. 그녀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린에 만아 복음을 듣고 있는 모습.



▲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대신하여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최선교사.

● PHOTO ●



▲ 다양한 음식들로 준비된 마을잔치 모습.



▲ '셀레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



▲ '탈루에레'에 '빛'을 선물하다.
솔라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 '베베랍' 마을방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두 자녀 지명이 명재도 통역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 '리빌코'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린 예배,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는 아름답습니다.



▲ '리빌코 교회' 앞에서 단체사진.



▲ 7월 중순에 완공된 부시 어린이들을 위한 '나술레슬레' 기숙사. 더이상 비새는 기숙사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다들 행복해합니다.



소속단체 GMP(한국개척선교회) | 파송교회 부산 호산나교회
 김희균 선교사 ✉ kimhgdavid@gmail.com 📺 kimheegeaun
 최경인 선교사 ✉ worship1225@hanmail.net 📺 worship1225
 전용계좌 KEB 하나은행 303-04-00004-431 GMP김희균

